

순천만정원박람회 7개월 대장정 막바지 가을행사 절정



6개월 만에 800만 관람객을 달성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10월 하루 평균 10만명이 찾는 가을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해가 진 뒤 시민들이 그린아일랜드를 걷는 모습(왼쪽)과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한 가족이 섯노란 국화밭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모습. <순천시 제공>



개막 190일 만에 목표 관람객 800만명을 달성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7개월 대장정의 끝을 바라보고 있다. 이달 말 폐막을 앞둔 정원박람회는 '국제농업박람회' '청춘마이크' '순천뷰티페스타' 등을 열어 다채롭게 가을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15일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개막한 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은 지난 10일 기준 826만명을 기록했다.

전날 기준 입장권·식음료 판매 등으로 올린 매출액은 316억원으로, 목표액(253억원)의 124%를 초과 달성한 상태다. 정원박람회는 개막한 뒤 12일 만에 100만명, 23일 만에 200만명 관람객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불볕더위와 장마에 대화제를 보이기도 했지만, 황금연휴였던 추석 명절 6일 동안에는 100만명이 박람회장에 몰렸다. 이윽고 이달 7일 누적 관람객 800만명을 달성하면서, 개막 반년 만에 6명 중 1명꼴의 국민이 찾은 명소가 됐다.

10월 하루 평균 10만여 명이 찾는 정원박람회는 주말·휴일이면 곳곳에서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박람회장 내 35개 수익사업시설과 인근 원도심 음식점들은 재료가 없어 장사를 못 할 정도로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순천을 찾는 관광객은 전남 동부권 지역으로도 낙수 효과를 냈다. 여수·광양·보성·구례·고흥지역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여수시는 박람회 대비 관광종합대책반을 가동했고, 광양시와 보성군은 정원박람회장을 거치는 시티버스를 운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애초 2023정원박람회의 생산 유발 효과를 1조592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15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원박람회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만5149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박람회로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박람회장에 녹아든 '순천만의 특색'에 있다.

4차선 아스팔트 차도를 6만평(19만8347㎡) 규모 오전그

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로 탈바꿈하고, 동천에서는 전기배터리로 운행하는 정원드림호를 국내 최초 운행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숙박형 체험 '가든스테이'도 정원박람회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요소이다.

국제원에생산자협회(AIPH)는 지난달 순천에서 75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원박람회장을 찾았다.

협회는 노관규 순천시장에 내년 봄 열리는 가타르 총회에 참석해 순천의 성공 비결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구 28만 도시 순천은 연휴 기간 하루 2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교통 체계를 가동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를 운용했으며, 주차면 수 확보, 시내버스 구간 조정, 순환버스 운행, 차량 2부제 운동 등의 노력을 했다.

지난 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계자들이 정원박람회장을 찾았다. 이들은 방문객 집계, 안전 드론 운행, 착용 CCTV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을 배워갔다.

자원봉사자와 해설사, 모범 운전자 등 4200여 명의 순천 시민은 박람회장 곳곳을 누비며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다. 박람회를 위한 시민 기부금은 20억원이 모였다.

폐막을 보름 남기고 193ha 규모에 달하는 정원박람회장은 다양한 문화공연과 행사를 마련했다. 순천만습지의 황금빛 갈대밭과 억만 송이 국화가 핀 국가정원은 가을 분위기 절정에 달했다.

16일 마무리하는 '1회 남도영화제'는 남도의 가을과 어울리는 영화와 음악 공연을 선사했다.

오전그린광장에서는 오는 27-28일 청춘마이크 전라권 페스티벌이 열린다. 11개 팀이 실력을 뽐내고 힙합 그룹 에픽하이도 무대에 오른다.

올해 국제농업박람회는 정원박람회장 인근 생태문화교육원 일대에서 오는 22일까지 11일간 열린다. 40개국 50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한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최신 농업기술과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오는 21일 순천만국가정원 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는 '2023 순천뷰티페스타'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그린 런웨이 쇼'를 열고 시민 200여 명과 국가정원 어싱길(3km) 맨발 걷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미리 혈압·우울증 등 건강 측정을 하고, 뭉뚱기를 한 뒤 맨발로 국가정원을 걷는다. 순천 어싱길은 순천만습지, 순천만 국가정원, 오전그린광장 3개 권역 8개 구간(12.5km)이 조성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3km 구간을 걷는다. 순천시는 오는 19일까지 선착순 200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박람회장과 도심에 있는 풍덕경관정원(무료)은 또 다른 가을 명소로 떠올랐다.

이곳의 농경지 26ha는 대규모 정원으로 변신했다. 순천시는 12.3ha 면적에 벼둠마련초, 황화 코스모스 등 가을꽃 11종을 심었다.

방문객들은 오색잔란한 가을꽃을 감상하고, 밤에는 바람개비 조명을 만날 수 있다. 정원에는 동천마실길과 전망대, 농산물 판매장, 향기 체험장, 나무 그늘 쉼터 등 즐길 거리가 있다.

정원박람회 폐막식은 오는 31일 '새로운 시작, 더(The) 높게'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람회 조직위와 순천시는 폐막식에 앞서 '어린이 뮤지컬', '한복 패션쇼' 등 세대별 참여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부터 치르는 공식 폐막행사는 214일간 정원박람회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순천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순천시는 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으로 '굴뚝 없는 친환경 산업'인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 K-콘텐츠의 위상에 힘입어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키워 'K-문화콘텐츠 산업 특구'를 품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창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순천은 대도시를 꿈꾸지도, 따라 하지도 않는다"며 "정원박람회 그 고됐던 우리 도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제대로 집중하고 투자한다면, 언젠가 부작업을 만들어내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 판도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800만 관람 조기 달성...동부권 관광객 10%P ↑
국제농업박람회·청춘마이크·순천뷰티페스타 등 다양한 공연·어싱길 걷기' 시민참여행사 마련
무료 관람 '풍덕경관정원' 오색 가을꽃 11종 만발
'새로운 시작, 더(The) 높게' 주제 31일 폐막식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들이 '어싱(Earthing)길'을 맨발로 걷고 있다.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10월호

2023년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가을, 국악의 향연 속으로

國樂

특집

- 변신하는 국악, 더 신명난다
- 진도에 가면, 국악이 좋다!
- 국악의 잠재력이 폭발하다

멋과 맛 함께

진도타워 세방낙조 웰빙섬길

집도 웰빙길 | 명랑해전의 현장 물들목, 진도타워 해넘이 감동, 세방·금치산 전망대 | 보석 같은 조도군도 '굿모닝진도' 토시오 전복장·관플레이크 | 카페 '하이진도' 하루에 세끼' 명인이 키우는 건강쌀·흙차·숙차

기획 화보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2023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 ① 프롤로그

아트투어리즘 국내외 성공 도시 관광객 부르는 매력 탐색

에향 초대석

맑은 사람을 위한 책의 집' 운영, 괴테 연구자 **전영애**
"인간은, 지향(志向)이 있는 한 방황한다"

특별기획 - **신진남관람여지도** ⑤

미식관광의 메카로 떠오른 전남

특별기획 - "목도 어디까지 가봤니?" ⑤

104의 전국체육대외 스포츠와 문화예술 어우러지는 '문화 체전'

화제의 지역축제-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둘러보고 가을꽃도 만끽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④

대인동, 버스터미널과 대인시장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④

'원폭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폭탄의 시대 선사하다